

» 기행문 «

九州 중앙 횡단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奥 在 賢

◎ 하카다만(博多灣)과 몽고총(蒙古塚)

후쿠오카(福岡)와 하카다(博多). 같은 곳을 지칭하는 두 지명 때문에 혼란스러운 때가 많다. JR기차역명은 하카다 역이고, 공항은 후쿠오카 국제공항으로 되어 있다. 같은 九州 안내책자 안에서도 지도에 따라서는 하카다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후쿠오카만으로 되어 있기도 한다.



나카가와(那珂川)를 경계로, 동쪽이 상인지역으로 하카다라하고, 서쪽이 무사지역으로 후쿠오카로 하여 나누어져 있었으나, 1889년 시제시행 시 이 양 지역이 합병해서 시명(市名)을 후쿠오카로 하였다. 하여튼 나는 L여행사 관광단 일행 31명에 합류해서 2월 12일 가족과 함께 이른 아침 후쿠오카 공항에 내렸다. 그리고 관광버스에 승차하였다. 9시 25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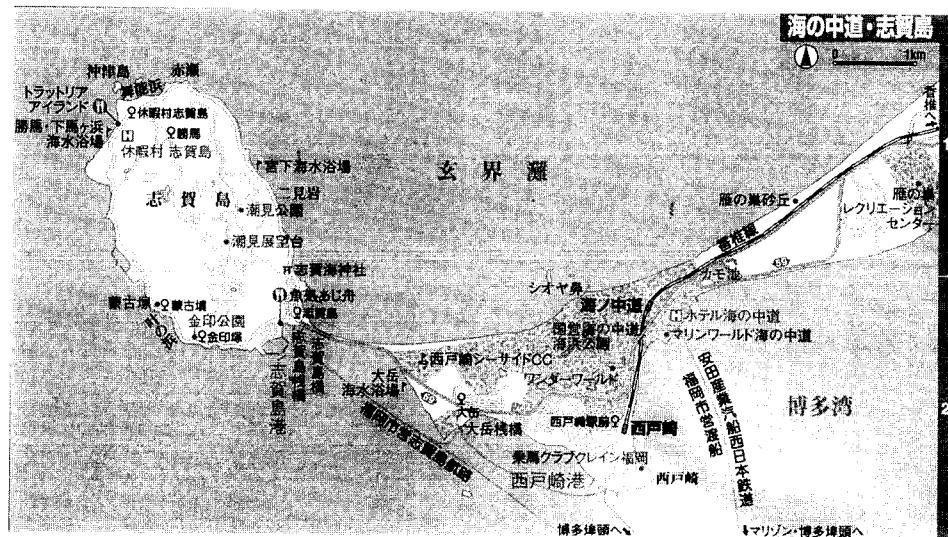
서울에서도 활동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다.

상품명이, 〈겨울특선〉 실속 가족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 규슈 4일로 되어 있고, 기본 일정이 후쿠오카 / 하우스텐보스 / 운전(1) / 구마모토(1) / 아소 / 베푸(1)로 되어 있다.

버스는 후쿠오카 시내를 빠져 九州自動車고속도로로 접어들고, 남쪽으로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를 향해 신나게 달린다. 5시도 채 되기 전에 분당을 출발하였지만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행사 관광단을 따라 다닌다는 것은 100퍼센트 괴동적이라 늘어진 해방감마저 느낀다. 그냥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밥 먹으면 먹고, 자라면 자고, 보라면 보고, 차타라면 타고, 그리고 설명만 열심히 들으면 된다. 이렇게 편하고 유쾌한 생활이 어디 있겠는가.

가이드 문영실씨는 버스에 타자마자 쉴 새 없이 안내와 설명이 시작되었다. 정확한 일본어 발음 그리고 어딘가 좀 어색한 우리말, 그래서 왕년에 교포였을 거라고 혼자 상상해 본다. 그리고 풍부한 日本에 관한 지식, 열정적인 설명이 매우 흡족하다. 3박 4일의 여행 기간 중 느낀 것이지만 만사가 매우 민첩하고, 합리적이다. 가령 식사시 미리 식당에 핸드폰으로 예약하여 가족 단위로 한자리에 안개끔 좌석을 배치해 준다.

버스는 어느새 도스(島栖) I.C.를 지나 나가사키(長崎) 자동차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나는 가방에서 九州 지도를 꺼냈다. 그리고 대한해협에 면한 하카다만에서 오무라만(大村灣)에 이르는 서쪽해안선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갔다. 하카다만은 시가노시마(志賀島)와 이도시마(絲島)반도로 둘러 쌓여있다. 그리고 시가노섬 남쪽과 이도시마반도의 이마즈(今津) 부근에 蒙古塚의 활자 표시가 있다. 5년 전 K군과 드라이브 겸해서, 이 志賀島를 탐방한 일이 있다. 하카다만과 현해탄을 가로질러 가늘게 뻗어 있는 우미노나까미찌(海の中道). 그 섬단과 연결된 섬이 志賀島이다. 이 섬 남쪽의 도독한 언덕위에 원구(元寇)의 공양탑인 봉고총을 참관한 기억이 난다.



하카다(博多)만의 우미노나까미찌(海の中道)와 시가노시마 (志賀島)

# “神風은 허풍”

가미카제

## “13세기 日침략한 元 함대 신풍에 궤멸된것 아니다”

13세기 일본을 침략한 원(元) 나라 함대를 두 번이나 ‘신의 바람’이 대신 격파해 나라를 구했다는 일본의 ‘가미카제(神風)’ 신화에 과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신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재활용 목재’로 만든 원나라 전함들이 너무 허약해 폭풍에 궤멸됐다는 것이다.

뉴 사이언티스트 최신호는 미국 텍사스 A&M대의 고고학자

인 랜들 사사키 교수가 1281년 당시 일본 침공에 나섰다가 다카시마 부근에서 침몰한 원의 선박 잔해 700여점 을 조사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박 잔해들은 가장 큰 것이 3m 를 넘지 않았고, 대부분 10cm~1m 크기였다. 또한 500여 개의 잔해에서는 매우 촘촘히 박혀 있는 못들이 발견됐다. 사사키 교수는 “잔해가 작고 못이 많이 박혀 있는 것은 헌 목재를 재활용해 만든 허술한 배였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현우기자 (블로그 hwhan.chosun.com)

九州 서쪽의 해안은 좋은 삶든 외국과의 관계 특히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었다. 663년 백제(百濟) 멸망을 앞두고, 백제군의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일본군이, 백촌강(白村江), 지금의 白馬江의 전투에서, 당·신라 연합군에 의해 대패하였다. 일본군의 전진기지가, 그리고 대패 후 많은 백제인을 데리고 후퇴한 곳이 이九州 서북쪽의 연안이었음을 쉽게 추상 할 수 있다. 다자이후(太宰府)는 신라의 침공을 두려워하며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규슈지역에 방어기지를 설치한 곳이다. 이곳에는 사령부격인 다자이후 건물터와 다자이후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높이 10m, 폭 80m, 총 길이 1.2km에 이르는 미즈키(水城)와 산성(山城)인 오노조(大野城)와 기이조(基肄城) 등이 남아있다. 그리고, 두 군데의 몽고총과 수津근처의 원구방루(元寇防壘)의 활자가 지도상에 뚜렷이 나와 있다.

1274년 10월 24일 아침의 일이다. 하카다만의 해변은, 원군(元軍)에 의해 갑자기 가마구라(鎌倉) 막부 무사들이 도살장 같은 참상을 나타냈다. 元軍은 성과 같은 큰 배 900척을 가지고 와 하카다만을 가득 채우고 있다. 상류군은 2만 명이었고, 九州의 무사들은 만 명이 넘지 못하였다. 2만의 元軍이 모두 봉골인은 아니었다. 강제소집 당한 한인 및 고려인이 다 수 섞여 있다. 일본 전후에 元軍은 함선으로 철수하였다. 밤중에 마침 일대 태풍이 발생하여 모든 함선이 전복하여 元軍의 침공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7년이 지나서 1281년 여름 재차 대거 래습하였지만 역시 밤중에 큰 태풍이 발생하여 전희 이상의 궤멸적인 손해를 입고 전투 그 자체가 소멸되었다. 日本서는 이 태풍을 가미가제(神風)라고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신문기사에 “神風은 허풍”이라는 기사가 실려 매우 흥미롭다.

하여튼 元軍은 동로군(東路軍)과 강남군(江南軍) 합해서 병력이 14만, 함선이 4천 4백 척으로 北九州의 바다를 온통 메우고 있었다. 1281년 7월 30일의 밤 태풍에 의해서 쓸다시피 한 손해를 받지 않았다면, 日本은 패망했을 것이다.

제 2차 원구(元寇)는 폭풍우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였지만, 살아남은 원병은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포로가 되었다. 포로 수는 천 몇 백 혹은 2천 몇 백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두 후쿠오카의 나카가와(那珂川)로 데리고 와 목을 쳐 날렸다. 섬나라 사람들은 이국인과 공존 할 수 있는 지혜도 경험도 없다.

이 이마즈(今津) 근처는 파도에 떠 밀려온 원병의 시체로 해변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일본인은 죽은 사람의 영(靈)을 부서워했기 때문에, 유해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 매장하였다. 혹 화장하여 매장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몽고총(蒙古塚)이다.

하카다만에서 전사·수사(水死)한 원군은, 제1군인 동로군이 많다. 동로군의 대부분은 고려병이었다. 이 이마즈 해변에 떠밀려온 사체도 거의 대부분이 조선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 두 번에 걸친 日本침공의 실패로 후비라이(忽必烈)의 손해는 심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日本침공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제2차 침공의 전례 그 정부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치하고, 고려에도 같은 것을 설치시켰다. 후비라이는 실패 하는 것에 둔감한 사내로 몇 번이나 재정복 준비[주로 조선(造船)]의 명령을 내려, 이 때문에 고려는 괴짜 그 자체였다. 그의 재정복의 꿈은 그의 죽음(1294년)에 의해서 겨우 멈추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 의하면 日本 침공에 앞서 몽고는 1231년(고종 18년) 1차 침입을 시작으로 1258년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일곱 차례에 걸친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다. 몽고군의 살육이 가장 심했던 고종 41년(1254년)에는, 몽고에 사로잡힌 남녀가 무려 20만 6천 8백여 명이며, 살육당한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전한다. 30년간 고려는 몽고군에 르러로 밀다시피 짓밟혔다. 최후의 저항군인 삼별초(三別抄)가 제주도에서 전멸(1273년) 당했을 때, 원은 제주도를 고려로부터 분리하여 직할령으로 하였다. 즉 탐라국초토사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여 日本 침공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그리고 많은 함선을 제주도에서 만들게 하였다. 한라산 기슭의 초원에는 지금도 몽고기마병의 조랑말이 남아 있어 750년 전의 악몽 같은 당시의 잔영을 회고케 한다.

지도를 읽는 초점을 남쪽으로 옮겨 가라즈시(唐津市)를 지나 나고야성지(名護屋城跡)에서 멈추었다. 토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침공(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왜란)의 본부(大本營)를 이 마쓰우라(松浦)반도의 섬단 나고야(名護屋)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산에 성을 축조하고, 출진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제다이묘(大名)를 성 주위에 살게끔 하였다. 지금도 산중에 성터가 남아있다고 한다.

### ◎ 히라도지마(平戸島)

히라도지마는 9주 서북쪽의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아주 오래전부터 중계무역지로서 부유를 누렸았다. 무로마찌기(室町期)부터 전국기, 토요토미기를 거쳐 에도 초기까지 이어 온 이 섬의 마쓰우라(松浦)제 다이묘는 무장이라기보다는 무역업자였다.

섬의 위치에 따라서 무역의 상대국이 정해졌다. 대마도는 조선전문이었다. 히라도지마는 조선과는 인연이 없고, 중국 남부 상대였다. 나중에 중국인 王直부터 항로를 배우면서 포르투갈인이 이 섬에 왔다. 포르투갈 인에 이어 스페인선이 온 일이 있고, 영국(1613년)도 한때 상업관을 갖은 일이 있다. 그러나 영국인 보다 4년 전에 온 네덜란드인이 가장 열심히 이 섬과의 무역에 집착하였다.

9주의 관광안내책자에는 히라도지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히라도(平戸)는 견당(遣唐)·견수사(遣隨使)가 기항한 옛적부터 대륙과의 중계지로서 번영해 왔다. 1550년의 포르투갈선 입항을 시작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선이 입항하여 상업관을 건설하고 무역에 종사하였다. 그 후 에도막부의 쇄국정책에 의하여, 무역항은 나가사키(長崎)항만으로 지정되어 히라도시대가 막을 내렸다.」

히라도시(平戸市)의 지도를 보고 있노라면, 히라도 네덜란드 상업관 터, 미우라안신(三浦按針)의 묘, 사비에르기념비 및 성프란시스코 사비에르기념성당 등의 관광 사이트가 눈에 띈다.

포르투갈선이, 오직 한척이지만, 히라도항에 입항한 것은 1550년이다. 이 해의 전해 예수회(야소회)의 선교사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가톨릭을 日本에 선교하기 위해 사쓰마(가고시마)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이 해(1550년), 사비에르는 히라도를 다녀가고, 히라도의 포르투갈 무역시대를 열었다.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에 있어서는 극히 전투적인會가, 사비에르 등의 7인의 동지에 의해서 파리에 설립된 것은, 사비에르가 日本에 오기 겨우 15년 전(1534년)이었다. 이 회의 조직 감각은 군대적이고, 선교의 개념은 전쟁의 개념과 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에 있어서 크리스트는, 지상의 알(日本의 경우 불교)과 싸우는 정의군의 총대장이고, 예수회 회원들은, 크리스트의 깃발아래 분전하는 병사임을 자처하였다.

얼마 전(2004. 9.) 선종한 베이슬 프라이신부가 이 예수회 소속이다. 그는 예수회가 주도한 서강대학교 설립을 위해 1957년 한국에 파견되어 47년간 우리와 함께 했다.

포르투갈 상선대와 가톨릭신부들은 日本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조직체였고, 사비에르 등의 이 회원의 경제적 보호자가 포르투갈의 상업주의자였다.

“무기와 화약 등을 사려면 먼저 입신(入信)하라”

선교사들은 이런 불자와 교환으로 선교를 하였다. 이 전략과 Ying은 대 반발을 초래하였고, 드디어 에도마부는 가톨릭을 추출하고, 프로테스탄트의 네덜란드인에게만 제한무역을 허가하였다. 이 결과는 이 시대의 예수회의 강압적이고 지나친 선교활동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이보다 앞서 1563년 포르투갈인과 선교사들은 히라도를 철수하여 사세호만(佐世保灣)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1571년 나가사키(長崎)를 발견하여 그곳으로 다시 옮겼다. 나가사키는 포르투갈선이 오기 전까지는, 갈대밭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나가사키의 문화는 가톨릭으로 시작되는 남만(南蠻)시대이다.

나가사키에 최후의 배가 입항한 것은 1609년이고, 1620년에는 포르투갈이 나가사키에서, 日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온 가톨릭(크리스챤)과 문화는 오래 오래 日本사회에서, 특히 九州지방에서 꽂피우고 혹은 잠재하고 있었다.

日本의 서양문물의 수용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는 것도 근대화과정을 정리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1600년, 토구카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정권 교대전에서 천하를 얻은 해, 네덜란드는 동양과의 무역을 위해 5척의 상선을 파견했다. 그러나 4척이 난파하고 리프데호만이 1600년 6월에 日本에 표착하였다. 이 네덜란드 상선의 항해장이 유명한 영국인 윌리암·아담스(威廉·亞當斯)이다. 1609년 5월에 2척의 네덜란드 상선이 히라도에 입항했다. 그리고 1641년 나가사키로 옮겨, 막부 말까지 긴 日本·네덜란드 관계가 성립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이에야스(家康)는 네덜란드에 호의를 갖고 있었다. 아담스에게 집도 주고, 토지도 주고 부인도 맺어 주었다. 그리고 이름을 미우라 안진(三浦按針)으로 하였다. 그는 이에야스의 세계학과 무역고문을 하면서 서양범선의 건조도 하였다. 아담스는 막신(幕臣)이고, 이에야스의 무역고문이기 때문에, 히라도에 있는 네덜란드 상업관의 활동을 도왔다. 한편, 히라도 네덜란드 관의 성립부터 4년 후인 1613년, 영국의 동인도회사의 요인인 존·세리스가 영국선을 타고 히라도에 왔다. 도착하자마자 관동에 있는 아담스에게 편지를 내어 히라도에 오게 하였다. 그러나 둘 사이는 원만하지 못하였다. 아담스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회사원이었고, 네덜란드의 이익을 쟁기는 비즈니스를 해야 했다.

다만, 모국 영국에 대한 배려도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히라도 체재 중 네덜란드 관에도 거주하지 않고 민가를 빌려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그 집 창밖에는 항상 영국기를 달고 있었다. 윌리암·아담스가 日本에 표착한 것은 36세 때였다. 그리고 56세 때 히라도에서 병사하였다. 그 묘가 히라도에 있다.

대만을 네덜란드의 점령부터 탈취(1661년)한 鄭成功은 臺灣에서 신격화되어 있다. 타이난(台南)의 國立成功大學도 그의 이름으로부터 따온 것이다. 이 鄭成功的 아버지 鄭芝龍은 해적의 두목으로서, 이 히라도에 체재 중 日本人 여성 三川씨와 결혼하여 장남 鄭成功(1624~1662)을 생산하였다. 히라도를 지도에서 보고 있노라면 생각나는 또 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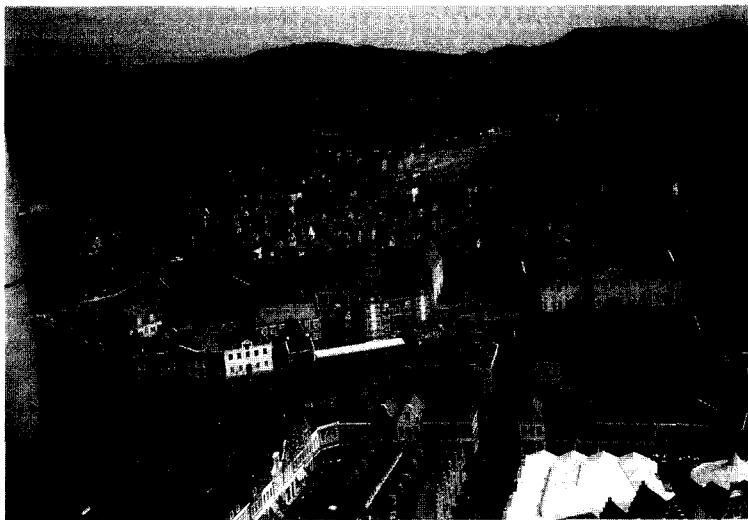
## ◎ 하우스텐보스

버스는 12시 조금 전에 오무라만에 자리 잡은 일본 속의 작은 유럽 “하우스텐보스”에 왔다. 우리 일행의 첫 볼거리다. 다음 글은 어느 신문사 주말 매거진에서 “하우스텐보스”를 소개한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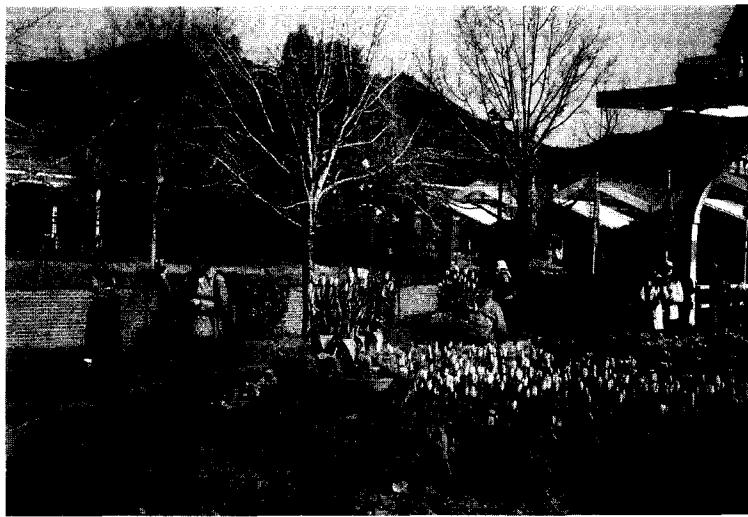
「입구에 들어서자 동화 속 그림처럼 풍차 5대가 돌아가고, 네덜란드 풍 옷차림의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한다. 요트나 배를 타고 운하를 지나가면 유럽풍의 개인 별장과 호텔이 양편에 늘어서 있다. 49만평의 부지에 2400억 엔을 투자해 만든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의 하우스텐보스(Huis ten Bosch·숲 속의 집)는 분명 ‘일본 속의 유럽’이다.

나가사키가 네덜란드에 문호를 처음 개방한 지역이라는 데서 착안해 조성한 이 휴양지에 들어서는 것을 ‘입장’ 아니라 ‘입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네덜란드 여왕의 궁전을 재현한 ‘팰리스 하우스텐보스’와 시청 대성당 등 네덜란드의 건물들을 설계도 그대로 다시 만들어 지난 1992년 문을 열었다. 걸보기엔 17세기의 네덜란드가 재현된 것이지만 건물 속은 박물관, 각종 체험시설 등으로 들어차 있다. 40만 그루의 나무와 30만 여종의 화초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팰리스 하우스텐보스의 ‘벽화의 방’과 바로크 식 정원 등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이 휴양지 곳곳에는 탈(脫) 아



하우스텐보스의 집들



하우스텐보스의 꽃밭

시아를 향한 일본의 욕망이 배어 있다. 네덜란드 식의 성당 텁을 본뜬 105m 높이의 돔 투른 전망대에 올라보면 하우스텐보스의 전경을 둘러볼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말 것. 지난해 부채문제로 도산 위기를 맞았으나 노무라증권 등이 인수하면서 테마파크 곳곳에 '변신 중'이라는 표어를 붙여 놓았다.

800t의 물이 쏟아지며 네덜란드의 대홍수를 재현한 '호라이즌 어드벤처'가 최대 볼거리다. 의자가 덜컹거리며 실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인공 폭풍우와 번개가 치면 관광객들은 즐거운 비명을 올린다. '대항해 체험관'에 들어서면 거친 파도를 뚫고 항해하는 옛 뱃사람들의 선상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우리 일행이 입국해서 바로 크루저 승선장으로 가 유람선에 올랐다. 군데군데 안내양이 우리말로 안내를 해주었다. 우리말 명쾌를 기습에 달고 있다.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 겸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이라고 한다. 유람선은 운하를 따라 서서히 움직이며 꽃의 지구를 지나고, 왓세나 분양별장지를, 박물관의 지구를, 거리의 지구를 지나

서 월드레스토랑가에 와서 하선하였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식당 ‘짬뽕’으로 가서 나가사키 명물인 짬뽕을 먹었다. 그리고 둘 투른의 전망대에 올라가 하우스텐보스의 평화스러운 광경에 취하기도 하였다. 2월 15일 아직 봄이 오기에는 이른 계절이지만 네덜란드답게 군데군데 꽃이 만발하고 있다. 킨델다이크의 꽃밭, 툴립이 한창인 프슈케의 화단, 가지가지 꽃을 피우고 있는 꽃시계, 편키시가든, 봄을 방불케 하는 햇살이 오무라만에 가득하고, 네덜란드의 냄새를 한층 짙게 내뿜는다.

우리가족은 클래식버스를 타고 펠리스 하우스텐보스를 관람하고, 박물관의 지구에서 오르골 환타지아에 들러 고풍스러운 자동연주악기의 아름다운 음색을 듣기도 하였다.

### ◎ 운젠(雲仙)온천, 기독교 순교의 비

오후 5시 우리 일행이 탄 버스는 하우스텐보스를 떠나 나가사키 자동차 고속도로를 거친 후, 57호 국도를 따라 2시간을 달렸다. 그리하여 어둠이 짙게 깔린 운젠온천 고겐(高原)호텔에 도착하였다.

시마바라(島原)반도의 중앙에 운젠타케(雲仙岳)가 솟아있고 그 기슭(海拔 700 m) 고원에 유명한 운젠온천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주변이 日本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1934. 4. 16)되어 금년이 꼭 70년이 되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200년 전부터 이 운젠타케가, 시마바라반도가 화산폭발로 시달려야 하는 운명에 있었다.

운젠타케는 몇 개의 연봉(連峰)으로 형성되어 있다. 후젠타케(普賢岳), 묘젠타케(妙見岳) 등이 있고, 그 중의 마유다케(眉岳)는 시마바라시가의 배후에 우뚝 솟아있다.

이 산은 1792년 분화진동해서 시가전면의 대사면이 정상부터 산 아래까지 세로 두 쪽으로 갈라져 무너져, 시가지를 불과 진흙으로 덮어 바다로 흐른 적이 있다. 죽은 사람이 9천여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마유다케 붕괴 당시의 영주는 松平忠恕이란 인물로서, 이 재해의 심각함에 비관하여, 53세라는 연령임에도 정신상태에 이상을 가져와 얼마 안가서 죽었다. 당시 「寛政의 人變」이라고 불리는 천재는 에도기(江戸期)의 최대의 것이었다. 유실가옥이 3,300여 호로 지형(地形)을 염청나게 바뀌게 하였다. 시마바라의 항구는 토사로 메워져 사막이 되고 바다 속에 전락한 파편이 여러 개의 섬을 만들었다. 1637년의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亂)과 더불어 이 寛政의 대변은 이곳 주민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다.

그러나 1990년 普賢岳에서 다시 분화활동을 시작하여 헤이세이신산(平成新山)을 만들고, 후까에(深江) 마을에 토



운젠(雲仙) 온천장과 지곡구다니(地獄谷)

석이 흘러 가옥이 파묻힌 현장을 지금도 볼 수 있다. 당시 나는 NHK 뉴스를 통해 普賢岳의 문화활동을 TV에서 보고 가슴을 졸인 기억이 난다. 이렇게 대자연에 농락당하면서 그리고 자연에 대응하면서 운전온천은 오늘도 日本의 명 온천으로서 관록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유황천으로서 피부병과 부인병에 특효가 있어 명치시대부터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호텔에 도착하자 우리들은 방을 배당받고 일본식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대 온천탕에 들어가 세월은 가거라고 노닥거렸다. 노천탕에서는 일그러진 달빛에 비치는 잠잠한 화산봉우리를 바라보고 얼굴을 스쳐가는 찬 바람을 즐겼다. 따뜻한 탕 속에서, 고원의 이시간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가시게 하였다.



普賢岳의 문화로 생긴 平成新山

2월 16일, 관광 이틀째이다. 조식 후 우리일행은 운전지 고구(雲仙地獄) 구경에 나섰다. 지면부터 소리를 내면서 수증기가 분출하고, 계란이 썩은 것 같은 유황냄새가 코를 쳐른다. 왕년에 기독교 박해의 지 오이도지고구(お絲地獄)를 비롯해서 30개소의 지옥을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지옥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에는 기독교인의 비화를 말해주는 십자가가 서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549년에 사비에르가 가고시마에 상륙해서 포교를 시작한 기독교는, 九州를 중심으로 서민들 까지 널리 퍼졌다. 고니시(小西)씨의 오우라(大村) 및 아리마(有馬)씨의 시마바라(島原)와 같이 영주가 기독교인 곳은 신앙이 특히 두터웠다.

이 시대의 패자 토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는 이 상황에 공포를 느끼어 기독교 금교령을 내렸다. 그 후 도쿠가와 막부도 금교령을 내려, 개종하지 않은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크리스챤은 무서운 무리들이다. 그들은 외국세력을 불러들여 나라를 팔아먹으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종에서도 신앙이 두터운 시마바라(島原)와 아마구사(天草)에서는 엄한 탄압을 가하였다. 그러나 탄압이 엄할수록 불교도로 분장하여 막부의 추구부터 도망쳐 빠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비밀리에 기독교신앙을 굳게 하는 숨은 교인이 생기게 되었다.

아리마씨에 이어 악명 높은 마쓰구라 시게마사(松倉重政)가 시마바라 영주가 되었다. 그는 보신을 위해서 크리스찬을 괴롭히고 죽였다. 물담그기, 불태우기 등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나중에는 고문이 실증나면 운전지옥으로 데리고 왔다. 운전에서는 열 온천이 소리를 내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열탕을 교인의 몸에 펴붓고, 기절하면 소생 시켜서 다시 열탕을 펴부었다. 그리하여 죽으면 지옥으로 던져버렸다. 이 운전온천은 잔인한 이러한 비화를 간직하고 있다.

얘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운전지옥에서 아래로 좀 내려오니 명치시대부터 외국인 피서지로 개발한 신팅(新湯) 지역이다. 그곳에는 공동탕과 비지터센터가 있고, 발을 담그는 탕이 노천에 따로 있다. 이 탕에 발을 담그면 피로가 거짓말처럼 가신다고 가이드씨의 권유가 강해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려 발과 다리를 담갔다.

### ◎ 시마바라(島原)

운전온천에서 시마바라반도의 중심지 시마바라시로 이동하였다. 도중에 후카에 쪼(深江町)에 위치한 토사류피해가 옥 보존공원을 방문했다. 1990년의 후젠다케 재해로 화를 입은 가옥 11동이 토사에 파묻힌 그대로 전시 보존되고 있다. 화산학 부처가 남긴 화산활동의 사진과 영상을 전시하는 화산학습관도 참관하였다.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화산활동을 중지시키고 자연재해를 막을 길은 없다.



島原·深江町에 남아 있는 화산폭발에 의한 토사류 피해가옥

시마바라 하면 운센온천, 화산폭발, 크리스챤(포·christāo), 시마바라의 난, 이 네 키워드로 설명이 충분하다. 이제 시마바라의 난에 관해서 언급할 차례이다. 전술한 시마바라반도의 악질영주 松倉重政는 크리스챤 탄압에 있어 악마 이상이었다. 한편 시마바라성 축성을 위하여 중세를 부과하였다. 농민을 농노로 생각하고 권력의 본질을 흥기로 바꾸어 주민을 못살게 하였다. 조세미납자에게는 크리스챤과 동급으로 처참하게 죽였다. 이 압제에 견디지 못한 크리스챤과 농민은 1637년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시마바라의 난이다. 십자가의 깃발아래 결속은 하였지만,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벼랑 끝의 대 반발이었다. 그들은 싸워서 전사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모두 아사했을 것이다.

반란군은 가족을 데리고 하라조(原城)에 농성하여 대항하였다. 농성자가 3만 명에 가까웠다. 12만 4천명의 막부군에 의하여 3개월간 전투가 계속되었다. 결국 병량(兵糧)이 떨어지고 굶주림이 동작을 둔하게 하여 1638년 2월 27, 28일의 양일 막부군의 총 공격에 의하여 서리기둥이 놀듯이 반란군이 무너지고 말았다. 막부군은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야마다라는 내통자만을 제외하고 누구 하나도 이 살육에서 면할 수 없었다.

이 반란이 진압된 후 이곳은 대지가 뚉땅 비어있었다. 그래서 타 지방의 주민을 국가명령으로 이주시켰다. 시마바라의 난이 얼마나 무서운 큰 사건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 일행은 시마바라의 난과 무관하지 않은 시마바라성(島原城)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부께야시끼아도(武家屋敷跡)로 왔다. 시마바라관광의 제일급지이다. 왕년에 시마바라의 하급무사가 살고 있던 주거지역으로, 총(鐵砲)을 주력으로 한 가찌(徒士)부대의 주거가 주였으므로 덧뽀마찌(鐵砲町)라고도 불린다.

가찌(徒士)라는 것은 하사(下士)로서 전장에서는 말을 타지 않고, 부하를 거느리지 않고, 오직 혼자서 도보로 걷는다. 같은 도보자라도 아시가루(足輕)보다는 높으며, 출병은 아니다. 시분(士分·상사)과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영지(領地)를 갖지 않고, 부지미(扶持米)를 받고 있었다. 오늘날의 급료와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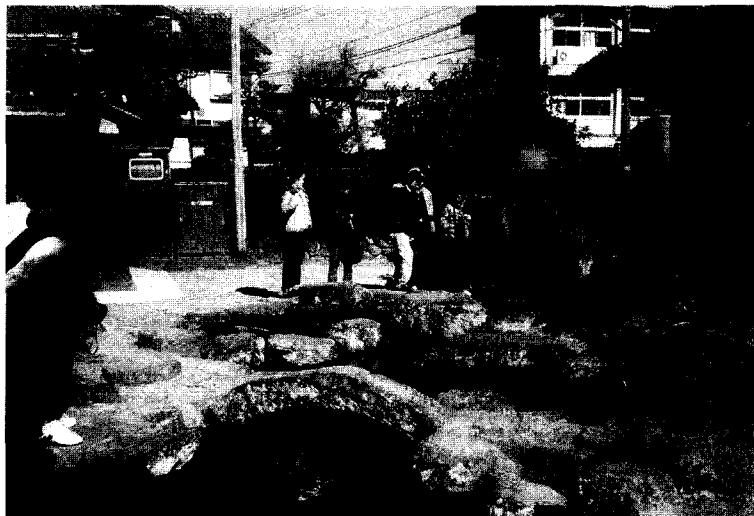
돌담과 돌담사이에 도로가 있고 그 중앙에 수로가 있어 맑은 물이 힘차게 흐르고 있다. 이 물은 마유다께(眉岳)에 스며있던 물이 흐른 것으로 마실 수도 있으나 양측 집들의 쌀, 야채 및 식기 세척에만 사용한다. 음료수로는 우물을 이용한다.

“좋은 집에만 우물이 있습니다”라고 가이드씨가 설명한다.

덧뽀마찌에는 가찌반이 아니고 시분(士分)의 집도 섞여 있다. 가찌의 집은 70~80평 넓이지만 시분의 집은 정원도 있고 우물이 있다. 가찌의 집이나 시분의 집에는 문이 있고 현관도 있다. 그러나 아시가루의 집에는 이것이 없



島原 무사마을의 길과 개울



島原 무사마을 속의 조그만 공원

나. 가이드씨의 안내에 따라 암모도가 「山本家」로 들어가 집 구조를 살살이 보았다. 이집은 집 주인의 호의에 의하여 시마바라시가 빌려서 일반 견학에 제공하고 있다.

「山本家는 오늘까지 11대가 이어오고 있다. 역대 중에는 포술사범이었던 사람도 있고, 한(藩)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도 있다.」라고 안내관에 적혀져 있다.

야시끼 마을의 중앙쯤 되는 곳에 넓은 공간이 있고, 바위로 못을 만들어 잉어를 키우고 있었다. 깨끗하고, 천자연적이고, 평화스러운 마을이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시마바라반도의 넓지도 않은 땅에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극단적인 자연현상과 극단적인 참상들이 줄줄이 발생하여 전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日本에서 제일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자연은 수려하다. 특히 옛날의 야시끼마쓰에서 내려다보이는 시마바라만의 잔잔한 물결은 호수를 방불케 한다.



態本로 가는 훼리 선상에서 바라보는 島原市의 雲山岳 연봉

우리 일행은 점심 후 훼리를 타고 이 호수 같은 시마바라만을 가로질러 구마모도(態本)로 향했다. 갈매기가 떼를 지어 선상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식빵조각을 들고 있노라면 그것을 물고 도망간다. 이것이 즐거워 아이들은 환성을 올린다. 가이드씨에 의하여 식빵조각은 계속 공급된다. 운젠다끼의 연봉이 점점 멀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보이고, 갈매기가 손바닥에 앉기도 한 훼리선상의 40분간은 어느덧 훌쩍 지나갔다.

### ◎ 구마모도성(態本城)

「日本 3명성의 하나인 구마모도성은 별명 은행성이라고 불리며, 명장 가토키요마사(加藤清正)에 의하여 1601년에 착공하여 7년이란 세월에 걸쳐 축성되었다. 성곽의 넓이는 약 78만 m<sup>2</sup>, 주위 5.3 km, 그 안에 대소 大守, 樓 49, 櫓門 18, 城門 29를 갖는 웅대한 구조로, 아름다운 곡선으로 쌓은 돌담과, 자연의 지형을 이용한 독특한 축성 기술을 살리고 있다.

구마모도성은 豊臣秀吉의 九州통일에 의하여, 그의 가신 加藤清正이가 구마모도 통치의 거점으로 축성한 것이며, 성하(城下)마을의 정비, 우수한 치산치수, 산업의 진흥 등, 오늘날의 구마모도의 기초를 만들었다. 그러나 加藤家의 처세는 德川氏의 비위를 거스르게 하여 2대 44년 밖에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 후 고꾸라(小倉)부터 細川忠利가 입성하여, 1871년(明治 4년)까지 11대 239년의 긴 세월 細川家의 거성이 되었다.

1877년(明治 10년) 세이난(西南)전쟁에 있어서는, 사이고다까모리(西郷隆盛)가 이끄는 사쓰마군(薩摩軍)을 상대로 50여일이나 농성하여,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진가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쓰마군의 공격 전전날 小天守閣 및 本丸 중심부의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하였다. 이때 남은 宇上櫓의 12동은 나라의 중요 문화재로 되어 있다.」

이상이 구마모도성 입장권에 팔려온 안내지의 구마모도성의 개요이다. 나는 이미 구마모도성을 세 번 이상 관람한 일이 있다. 그때마다 악명 높은 加藤清正과 임진왜란 당시의 고통을 되새겨보고는 했다. 그의 축성공학 중 가장 출중한 아름다운 곡선으로 쌓은 돌담(はね出し)은 그가 임진왜란 출전 시 조선에서 흔히 보는 “처마 끝 아름다운 국선”에서 딴 것이라고 누군가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세이난(西南)전쟁 당시 이 성에 놓성한 관군 3400명이, 사쓰마군 1만 3000명에게 압승하였다. 그 정도로 이성의 방어력은 최고였다. 축성 280년 후의 일이다.

천수각 앞 광장에는 그 당시의 관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다니다테기(谷干城)의 전공비가 있다. 몇 년 전 고찌(高知)에서 동창회가 있을 때 자유민권기념관에서 고찌출신 다니다테기의 특별전을 관람한 일이 있다. 군인으로서 정치가



態本城의 天守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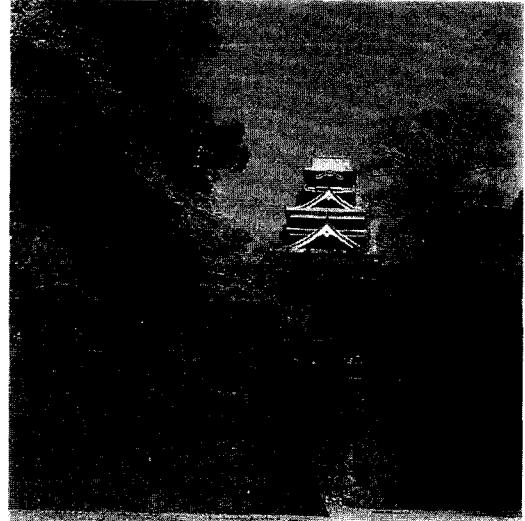
로서 또 민권운동가이기도 한 그의 생애를 그린 전시회이다. 이 전시장을 돌면서 이곳 출신 급우 다무라(田村)군이 그는 원래 한국사람 이었다고 귓속말로 얘기한 기억이 난다.

하여튼 구마모도성은 견고하였다. 이와 같이 견고한 요새를 만들게 한 것은 도요토미(豊臣) 정권의 전략적인 필요에서였다.

사쓰마의 시마즈한(島津藩)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

肥後(구마모도)와 사쓰마(加賀)는 인접해 있으면서 항상 긴장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사쓰마의 시마즈씨는 전국 말기에 전九州를 석권할 수 있는 세력을 가졌다. 豊臣秀吉이가 사쓰마의 에너지가 재 분출해서九州전역에 미치는 것을 기우하여, 그 분출구에 거대한 돌뚜껑을 한다는 의미에서 加藤清正이를 肥後에 두어, 견고한 구마모도성을 만들게 하였다. 이 때부터 사쓰마 사람들에게는 「肥後の 加藤」은, 가상적이 되었다. 그것보다는 “구마모도성”은 중앙 정권의 상징같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秀吉이의 대전략을 德川家康이도 탑승하였다. 그런데 300년이 흘러간 후 명치(明治)정부가 사쓰마의 에너지를 둘러썼다. 1877년(명치 10년) 西南전쟁에서 사이고(西郷)가 이끄는 1만 수천의 사쓰마의 에너지가 이 구마모도성에 분출하였다. 이 加藤清正이 지은 성의 공방의 승패가 명치정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였으나, 끝끝내 이 성이 중앙정권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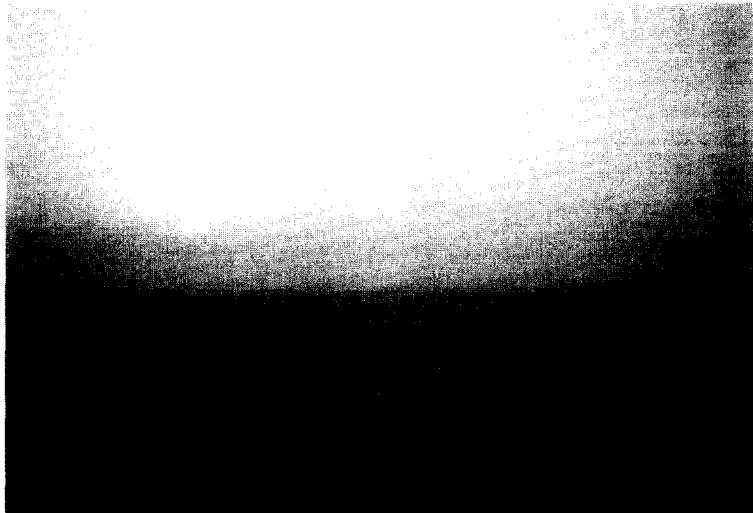
구마모도는 후쿠오카와 나란히九州의 중추도시이다. 풍부한 숲에 쌓여 있고 청결한 지하수가 흐르고, 도처에 성하마을(城下町)의 옛 자취를 남기고 있다. 구마모도성 말고도 영주 호소카와(細川)씨가 만든 스이젠히죠엔(水前寺成趣園)공원, 겸호 미야모도무사시(宮本武藏)의 족적, 나쓰메소세키(夏目漱石)를 위시한 문인들이 살던 집들, 불거리가 많다. 그러나 우리 일행은 구마모도성 만으로 구마모도 관광을 끝내고, 구마모도를 떠났다. 그리고九州 자동차 고속도로를 한 시간 북상하여 미나미세끼(南關) I.C.에서 빠져, 세끼아 힐스(セキアヒルス)로 와 호텔 세끼아에 여장을 풀었다.



돌담의 미



세끼아 힐스



호텔 세끼아에서 아침 조망

세끼아 힐스는 약 60만  $m^2$ 의 구릉지대에 펼쳐지는 복합형리조트시설이다. 쇼핑몰에는 80개의 점포가 나란히 자리 잡고 호텔 세끼아 157실이 모두 테라스가 붙어있다. 그리고 천연온천과 풀장이 있다. 세끼아 힐스가 위치한 미나미세끼마찌(南關町)는, 에도시대에 설치된 세끼쵸(關所) 옛터가 있고, 옛날부터 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끼쵸란 우리나라의 관문과 같은 곳이고, 오늘날의 국경선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같은 곳이다. 이 세끼아 힐스는 이곳 산들의 지형을 활용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쇼핑, 오락, 스포츠, 교양, 호텔 등을 집약시켜 하나의 마을로 탄생시킨 곳이다. 전통 있는 서구의 산악도시부터 힌트를 얻어 만든 곳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끼(關)에 “er”을 붙여, 「세끼아」라고 부르고 있다. 마치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뉴욕커(Newyorker)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가이드씨가 자신 있게 소개한 세끼아힐스 그리고 호텔 세끼아는 넘칠 만큼 홀륭하다. 환경, 시설, 식사 모두 만점이다. 쇼핑몰에서는, 특히 100엔숍에서는 가족들이 쇼핑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 ◎ 日本의 성(城)

넓은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오늘 보고 온 구마모도성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과 日本의 성이 어떻게 다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유럽관광에서 성당구경이 유품가듯이 日本관광에서 성을 빼놓을 수가 없다. 관광이란 그 나라의 자연과, 그 나라의 역사유물을 보는 것이다. 성이란 무엇인가. 표준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적군이 쳐들어 옮을 막기 위하여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올린 큰 담」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성이다. 돌로 높이 쌓아올린 큰 담을 성벽으로 표현한다면 성벽과 성문으로 이루어진 성곽(城郭)을 광의의 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日本의 성처럼 천수각, 니노마루(二の丸)와 같은 개념이 없다.

「本丸」는 성의 중심을 이루는 구루와(曲輪)로, 즉 소구역 혹은 성곽으로 전시에는 사령부가 설치된다. 근세의 성곽에서는, 성주의 거관(居館) 및 정청(政廳)을 위한 어전(御殿)과 천수(天守)를 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二の丸」本丸를 직접 수비하는 구루와로, 성주의 거관을 건축한 예도 많으며, 무기, 병량의 창고가 건립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三の丸」本丸를 간접적으로, 二の丸를 직접적으로 수비하는 구루와로, 근세의 성곽에서는 자신의 집이라든가, 마구간이 배치되어 있는 예가 많다.

日本의 성의 역사를 찾아보았다. 성이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축조한 방어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古代에서는 성(城), 책(柵), 혹은 도성(都城)이, 中世에서는 영주의 거관, 산성, 성채(城砦), 그리고 해자(環濠)에 둘러싸인 무사마을이, 에도 말기에는 각지에 축조된 포대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용어이다. 이와 같은 광의의 성은 日本 전국에 약 25,000개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일반적으로 성곽이라고 부르고, 성다운 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태반이 전국시대 말부터 安土桃山시대를 거쳐 에도 초기에 이르는 반세기 동안에 축조한 것으로 대소 합해서 3,000개의 성곽이 난립해 있었다. 그러나 大阪 나쓰노진(夏の陣, 1615년)의 직후 토쿠가와 막부의 일국일성령에 의해서 일시에 약 170성으로 정리되었다. 그 후로는, 성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막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였으므로, 약간 증가한 상태에서 명치유신을 맞이하였다.

명치유신으로 무사의 지배가 종료되므로, 신정부에 의해서 1873년(명치 6년) 성곽의 존폐 구분이 명시(소위 폐성령)되어, 약 2/3의 성곽이 폐가되었다. 그 후에도 폐가가 계속되고, 더욱 남은 성곽의 태반이 군용시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전쟁 시 많은 피해를 받았다. 전후에는, 향토를 대표하는 역사 유산으로, 혹은 관광자원으로 그 가치를 재인식하여, 소설한 천수각, 樓, 성문 등의 세건을 서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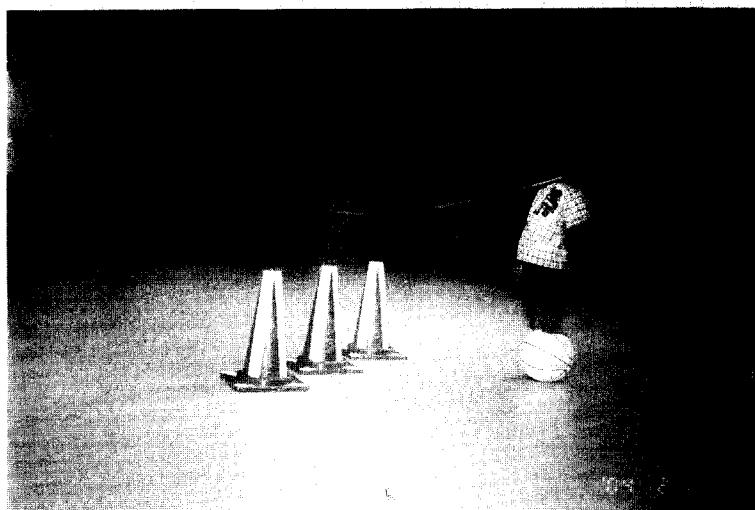
성은 항상 도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에도성(江戸城)이 오늘날 천황이 거주하는 궁성(宮城)이고, 東京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성이 공원이 되고, 녹지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日本의 성은 다른 나라의 성과는 차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 아소산(阿蘇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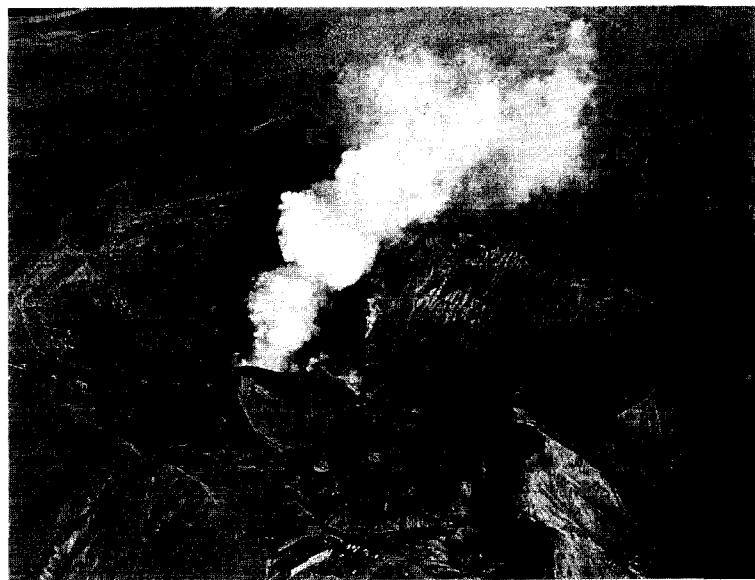
2월 14일, 관광 3일째 되는 날이다. 세끼아힐스에서 새벽녘의 전망은 훌륭하였다. 여기저기 안개가 덮인 산봉우리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은 환상적이었다. 아주 맑은 날에는 아소산도 조망된다.

국도 57호를 거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아소산 기슭의 원숭이 극장이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졌다는데 이 원숭이 극장에서는 원숭이 곡예를 매일 상연하고, 1회에 약 40분간 우리들을 웃긴다. 전좌(前座)와 진타(眞打)라는 두 조가 등장하여, 가지가지 보여주는 곡예에 화려한 대소 않을 수 없다. 4일간의 관광이 끝난 후 손녀들에게 어디가 가장 좋았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원숭이 극장하고, 벳푸(別府) 근교에 위치한 하모니랜드(Hello Kitty Land)가 좋았다는 답이었다. 공연 후에는 원숭이하고 사진촬영과 악수행사가 있어 아이들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다음 찾은 곳이 아소팜랜드이다. 이 근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로 전시되어 판매하고 있다. 이 팜랜드에서 한참 노닥거리고 휴식을 취한 후 우리들을 태운 버스는 가파른 아소등산도로를 달려 목적지 아소나카다케(阿蘇中岳) 분화구 아래로 왔다. 九州의 중앙에 위치한 활화산, 아소산. 전주 128 km의 외윤산(外輪山)으로 둘러싸이고, 연기를 품어내는 나카다케(해발 1,500 m)를 중심으로 중앙 화구구(火口丘)의 아소오악(5岳)이 응대한 모습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이 오악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급의 대 칼데라(caldera)를 형성하고 그 안에는 일곱 개의 마을이 있고, 도처에 온



阿蘇山 원송이극장에서 원송이 곡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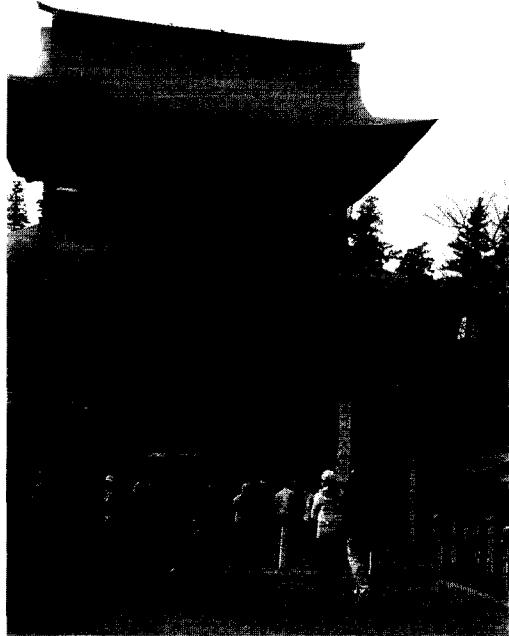


阿蘇山 中岳 分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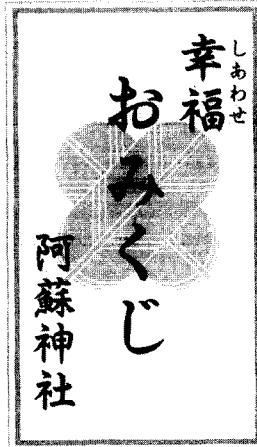
천이 솟고, 레저시설이 점재한다. 드라이브, 승마, 하이킹 등 아웃도어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는 대 레저지역이다.

구사센리가하마(草千里ヶ浜)는, 아소 5악의 하나인 도리보시다케(鳥帽子岳, 1,337m) 북쪽 기슭 화구터에 펼쳐지는 대초원이다. 연기를 품어내는 나카다케를 배경으로 방목된 소와 말이 유유히 풀을 뜯어 먹고 있는 풍경은 제주도 한라산 기슭을 연상케 한다. 한라산 남쪽에도 군데군데 옛 분화구 ‘오름’이 솟아있고 대초원이 펼쳐진다. 아득한 옛 날 몽고군이 몽고의 초원으로 착각할 만큼 광대한 감각을 자아낸다. 하여튼 구사센리가하마도, 이와 많이 닮았다.

불행하게도 날씨가 나빠, 나카다케 산정으로는 못 가게 되었다. 로프웨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남북 약 1km, 동서



阿蘇山 기슭의 阿蘇神社



400 m, 주위 약 4 km의 화구(火口)에서 품어내는 연기를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대자연의 엄숙한 현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석하다. 하는 수 없이 화산박물관 관람으로 대체하고 하산하기 시작했다.

하산이 끝나고 평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아소신사(阿蘇神社)로 가이드씨가

안내하였다. 기원전 281년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믿기 어려운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현 공사(宮司)가 91대째라는 것이 이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꼬마 아가씨들은 우리 일행 중의 같은 나이또래와 금방 친구가 되어 일금 100엔을 투자하여 각자 오미구지(おみくじ)를 뽑았다. 오늘의 길흉을 점쳐보려는 신사고유의 조그만 제비 쪽지이다. 버스 뒤쪽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나보고 그쪽으로 와 이 쪽지를 읽고 설명해 달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3·4학년짜리 꼬마들의 로비활동이 이만저만 아니다.

버스는 여전히 57호 국도를 달려 다케다(竹田)시를 지나고 있다. 이 다케다시는 명곡 “황성의 달”을 작곡하고 2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 한 다카렌타로(龍廉太郎)가 한때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그의 기념관이 있고, 그 작곡의 모티브(motive)가 된 오카조시(岡城趾)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성은 1,185년에 축성한 것으로, 사방을 단애절벽의 깊은 계곡에 쌓여 시마즈(島津)군의 공격을 1,000명으로 지켰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명곡 “황성의 달”의 모델이 된 성이기도 하다. 버스가 다카렌타로 터널을 지날 때 “황성의 달”의 곡이 조용히 잔잔하게 버스 속에 흘렀다. 잠시 모두 숙연해지고, 이 명곡의 멜로디에 도취되어 있었다.

### ◎ 벳푸

버스는 오이다(大分)시를 거쳐 일몰이 가까워질 무렵 벳푸(別府)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바로 방문한 곳이 우미지옥(海地獄)이다. 지하 250 m부터 100°C의 열탕과 증기를 뿜어내는 이 우미지옥은 이름 그대로 지옥을 연상케 한다. 벳푸에는 이 우미지옥 말고도 7개의 지옥이 있다. 가장 박력 있게 분출하는 곳이 다쓰노마키(龍巻) 지옥이다. 약 30분 간격으로 열탕이 분출하고 그 높이는 20 m에 달한다. 미국 엘로스톤국립공원에서 분출하는 열탕과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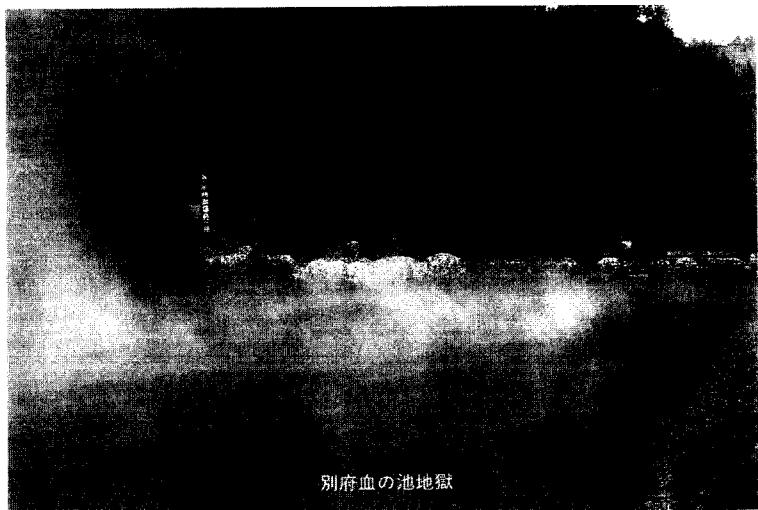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하나의 지옥은 지노이케(血の池) 지옥이다. 선혈을 연상케 하는 진한 적색의 열탕이 부글부글 끓어 뜯을 만들고 있다. 산화철의 뜯(池)이다. 日本 최고, 벳푸를 대표하는 천연지옥이다. 넓이 1,300 m<sup>2</sup>, 깊이 30 m, 온도 78°C, 산화철, 산화마그네슘 등을 함유한 적색의 점토를 분출하여, 뜯 전체가 진한 적색임으로 피의 지옥이라고 칭한다. 그 붉은 점토로 피부병 약, 피의 뜯 연고를 만들고, 손수건 등의 염색을 행하기도 한다. 1875년부터 1927년까지 아홉 차례나 폭발한 기록이 있다. 이 뜯 지옥 순방이 벳푸관광의 하이라이트이다.



증기가 분출하고 있는 벳푸(別府) 온천장



벳푸온천 · 다쓰노마키((龍卷) 지옥



벳푸온천 지노이케지옥(血の池地獄)

벳푸는 日本 유수의 온천천국이다. 원천 · 천질의 풍부함은 세계적이고, 용출량은 日本 제일이다. 거리 곳곳에서 뿐어내는 온천 증기는 벳푸를 온통 온천의 거리로 만들고 있다. 벳푸하면 온천이고, 온천하면 벳푸이다.



別府 우미노지곡구(海の地獄)에서 분출하는 온천증기



別府온천 명반유노사토(湯の里)의 한증막 촌

### ◎ 하모니랜드, 키쓰키(杵築)

2월 15일(일), 호텔 후케쓰(風月)에서 일박 한 우리 일행은 벳푸 시내 뒤편에 솟아있는 오기야마(扇山)와 이오야마 (硫黃山) 중간 산자락의 명반 유노사도(明礬湯の里)에서 오늘 첫 관광이 시작되었다. 유황분이 함유된 온천 증기마다 점토를 접촉시켜 명반을 만들어 이것을 광광상품으로 팔고 있다. 그리고 오두막 같은 조그만 초가집을 지어 그 안에 온천수증기가 분출하게끔 하여 증기탕을 만든다. 우리나라 한증막 같은 상품이다. 신기하다고하면 신기하다.

다음은 오이다 자동차도로를 따라 조금 올라 간 고원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벳푸만을 조망하고, 산속 길을 한참 들어가서 히가시시이야노폭포(東推屋の瀧)를 관람하였다. 조금이라도 많이 관광시키려고 가이드 문영실씨가 이곳저곳 끌고 다닌다.



하모니랜드의 페스티벌 스테이지에서의 헬로키티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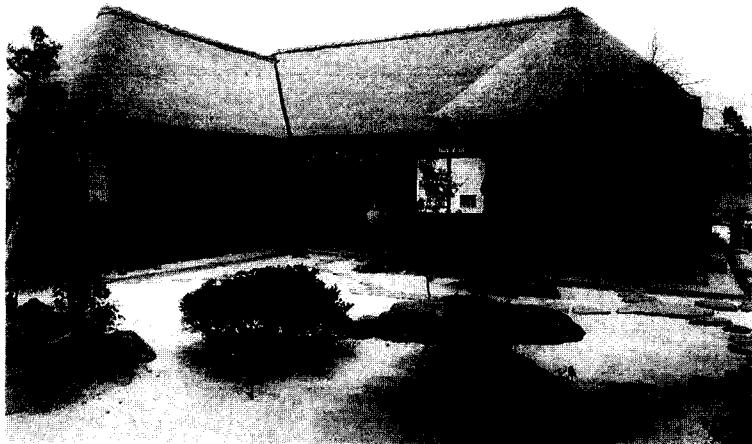


공연을 즐기는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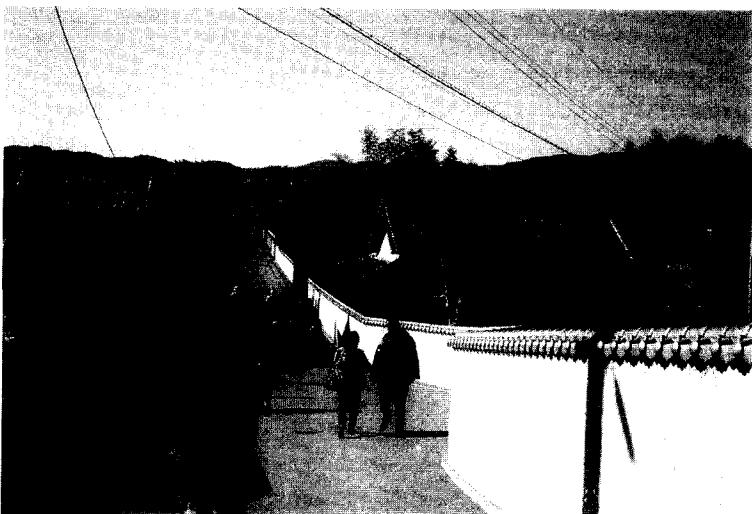
버스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시골 좁은 비포장도로를 가보는 것도 관광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산속 깊숙한 농촌 마을을 보는 것도, 산을 덮고 있는 수목을 보는 것도, 계곡에 흐르는 물의 색깔을 보는 것도 관광의 즐거움이다.

나는 외국에 나갈 때 기본적으로 관찰하는 몇 가지 항목이 있다. 공기, 하천에 흐르는 물, 산의 나무 그리고 밤 하늘에서 보는 지상의 조명 등등이다.

12:00시가 가까이 되어서 오늘의 관광지 하모니랜드(일명 헬로키티랜드)에 도착하였다. 먼저 하모니가든에서 두툼한 돈가스로 점심을 때우고, 페스티벌 스테이지로 갔다. 곧 공연이 시작되었다. 헬로키티와 산리오의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아이들을 황홀하게 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준다. 이 외에 삼림·대나무공원, 카니발스퀘어, 황태자성흔기념정원, 키티가든 등등 많은 놀이터가 있고, 특산물 컨트리마켓도 있다.



키쓰키(杵築) 무사마을의 오라하테이(大原邸)



키쓰키(杵築)의 무사마을

2시 반경 어렵게 이곳을 떠나, 하모니랜드와 가까이 있는 키쓰키(杵築)로 왔다. 돌을 깔아 포장한 언덕길을 걸었다. 돌담과 역사적 경관이 진하게 남아 있는 거리는 왕년에 부케야시키마찌(武家屋敷町)임을 말없이 말해준다.

일행은 오하라테이(大原邸)로 들어갔다. 정원도 넓고, 당당한 건물이다. 건축양식을 요령 좋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지라, 가이드씨의 설명을 옮길 재주도 없다. 하여튼 이 집은 상급무사의 집이었음이 분명하다. 19세기 중반 이전의 집이라는 것과,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회유식정원을 가진 키쓰키에서 가장 귀중한 유산의 하나이다.

이 大原邸에서 다시 언덕길을 걸어 키쓰키 성하마을 자료관으로 왔다. 바로 아래에는 키쓰키만이 보이고, 멀리 키쓰키성이 보인다. 日本의 성하마을. 성이 있고, 무사마을이 있고, 부케야시키(武家屋敷)가 있고, 영주가 베 풀은 문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은 관광명소로 되어 있다.

이 성하마을을 끝으로 3박4일의 구주 중앙횡단을 마감하고 우리 일행은 5시 반 서울 행 비행기를 타기위하여 오이다공항(大分空港)으로 길을 재촉하였다.